

## IT 분야의 융합교육에 대한 전문대학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비교

김경아<sup>0</sup>, 김지심<sup>\*</sup>, 권수현<sup>\*\*</sup>, 김준영<sup>\*\*\*</sup>, 진명숙<sup>\*\*\*\*</sup>

명지전문대학 컴퓨터공학과<sup>0</sup>

명지전문대학 컴퓨터공학과<sup>\*</sup>

명지전문대학 유아교육과<sup>\*\*</sup>

명지전문대학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sup>\*\*\*</sup>

명지전문대학 인터넷응용보안과<sup>\*\*\*\*</sup>

e-mail: kakim@mjc.ac.kr<sup>0</sup>, jjsimkim@mjc.ac.kr<sup>\*</sup>, kwonsh@mjc.ac.kr<sup>\*\*</sup>, jjune0@naver.com<sup>\*\*\*</sup>, msjin@mjc.ac.kr<sup>\*\*\*\*</sup>

## Comparing the Perception of College Professors and Students about Convergence Education in IT

Kyong Ah Kim<sup>0</sup>, Ji Sim Kim<sup>\*</sup>, Suhyun Kwon<sup>\*\*</sup>, Joonyoung Kim<sup>\*\*\*</sup>, Myung Sook Jin<sup>\*\*\*\*</sup>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yongji College<sup>0</sup>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yongji College<sup>\*</sup>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yongji College<sup>\*\*</sup>

Dept. of Fashion Textile Ceramic, Myongji College<sup>\*\*\*</sup>

Dept. of Internet Security Engineering as a Service, Myongji College<sup>\*\*\*\*</sup>

### ● 요약 ●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이 생존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융합교육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희망 융합 학문 분야 등을 조사·분석하여 전문대학의 융합교육에 필요한 학문 분야별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IT 분야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융합 희망 분야에 대한 인식 비교를 통해 향후, IT 분야 융합교육의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키워드:** 융합교육 (Convergence Education),  
교수자와 학습자 인식 비교 (Comparing the Perception of Professors and Students)

### 1. 서론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해 대학은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학이 생존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융합교육이다. 다학제간 융합을 통해 인문학이나 공학, 예체능 계열 등을 융합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특정 전공을 뛰어넘어 복합적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견지하고 있다. 융합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2]. 인문학이나 예체능 계열에 과학기술을 결합한 융합기술교육, 전공을 넘어서 교양이나 인성교육까지 융합하는 융합교양교육,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창의력이나 예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의융합교육 등 다양한 융복합 학제 간에 실시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도 2·3년 편제를 고려하여 전문학사에게 필요한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융합 교육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M대학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희망 융합 학문 분야 등을 조사·분석하여 전문대학의 융합교육에 필요한 학문 분야별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IT 분야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융합 희망 분야에 대한 인식 비교를 통해 향후, IT 분야 융합교육의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본 론

### 1. 전문대학 융합교육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 인식 분석

#### 1.1 조사 대상

2018학년도 2학기 M대학 교수 88명과 재학생 1,396명을 대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IT 관련학과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학정보학부의 교수자의 수는 37명(42.0%)이고 학습자의 수는 423명(30.3%)이다.

#### 1.2 조사 내용 및 방법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인식, 융합교육의 정의 및 융합희망 학문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속 계열에 따른 의견 분석을 통해 분야별 의견 및 요구의 차이점을 조사분석하였다. 교수자 설문은 총 20개의 문항으로, 학습자 설문은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18학년도 2학기 12월 2-3주에 걸쳐서 학생은 온라인으로, 교수는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을 모두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 2. 조사 연구결과 및 분석

융합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자기 전문분야 외 다른 분야를 추가하여 자기 전문분야의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교육”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른 2가지 이상의 전문분야를 합친(물리적, 유기적) 교육”에 대해 학습자는 10.3% 응답하였고, 교수자도 4.7% 응답하여 가장 적은 의견으로 나타났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융합교육의 정의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볼 때,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전공분야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융합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융합교육을 희망하는 학문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Fig. 1]에서와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디자인을 1순위로, IT를 2순위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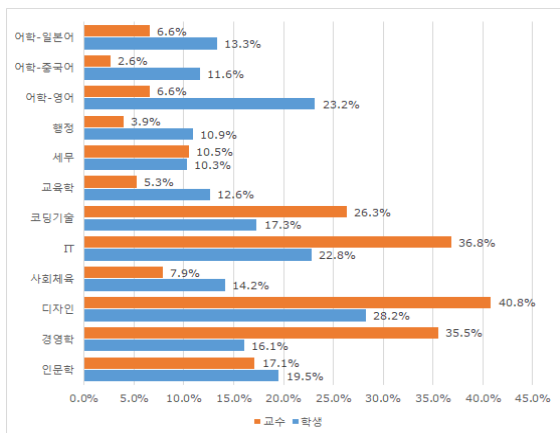


Fig. 1. Comparison of professor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desired convergence areas

<Table 1>에서와 같이 계열에 따라 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수자가 응답한 학문분야에 대해 공학정보학부는 디자인(50%), 코딩기술(29.4%), 경영사회학부는 경영학(80%), 세무(50%), 어학교육학부는 인문학과 디자인(각각 33.3%), 예술건강학부는 IT(64.7%), 디자인(47.1%) 순이었다. 학습자는 공학정보학부는 IT(34.4%), 코딩기술(25.9%), 경영사회학부는 어학-영어(23.8%), IT(22.7%), 어학교육학부는 인문학(34.1%), 디자인(33.6%), 예술건강학부는 디자인(34.3%), 어학-영어(26.4%) 순이었다.

Table 1. Desired convergence filed by department of professors and students

구분	상세구분(학부)	교수자		학습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계열	공학·정보	디자인	코딩기술	IT	코딩기술
	경영·사회	경영학	세무	어학-영어	IT
	어학·교육	인문학/디자인		인문학	디자인
	예술·건강	IT	디자인	디자인	어학-영어
	소계	88	100	1,396	100

융합교육을 희망하는 학문분야와 계열별 융합 학문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학과와 계열에서 IT 분야와의 융합이 자신의 학문분야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T분야가 소속되어 있는 공학정보학부는 디자인 분야와의 융합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고, 디자인 분야가 소속되어 있는 예술건강학부도 IT분야와의 융합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분야 간에 희망하는 융합학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융합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보다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III. 결 론

본 연구결과 다수의 교수자와 학습자가 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융합교육을 통해 전공분야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디자인 영역과의 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융합 방법 및 운영 모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Gukchul, Bang, “A Study on Liberal Arts Education of Convergenc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Japanese Language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 No. 79, pp.63-89, 2018. 12.
- [2] M. Jin, etc.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 Model Development and Operation Plan in Myongji College*, Research Report, 2019.2